

유소년 축구리그(i-리그)의 융합적 발전방향 모색

전선혜¹, 이범묵^{2*}

¹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²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Exploring convergent development of youth soccer league(i-league)

Sun-Hye, Jun¹, Pum-Mook, Lee^{2*}

¹Professor, Division of Physic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²Ph.d. student,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소년 축구리그(i-리그)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이고, 연구 결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리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홍보와 지역 내 리그 진행이 부각되었고, 그 해결방안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일원화 시스템과 권역별 운영이 제시되었다. 둘째, 유소년 클럽리그와 i-리그의 통합으로 인한 이슈는 팀별 수준차이와 승패 동기여부로 나타났고, 해결방안으로 승강제 운영이 제시되었으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유소년의 중요한 덕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페어플레이상, 봉사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리그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융합 및 화합을 통해 시설확보, 지도자 및 관계자 교육, 선수 등록과 같은 제반 환경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주제어 : 유소년 축구, 아이리그, 융합,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발전방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facing the youth soccer league(i-league) and present their development directions. The study method used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to three: First, promotion and regional league operation were highlighted as problems of i-League and the solution was the unification system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KOC) and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KFA), and the operation of each region by itself. Second, issues resulting from the integration of youth club league and i-league were revealed as level differences by teams and leak of the motivation for winning. Operation of the elevating system was proposed as a solution, and such as fare play team award, voluntary activity team award will derive important virtues for youth. Third, KOC and KFA need additional support for various environments and administrative areas such as facility security, training for leaders and officials, and registration of players.

Key Words : Youth Soccer, i-League, Convergence, Focus Group Interview, Development direc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Pum-Mook Lee(mook0806@naver.com)

Received April 4,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May 2,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유소년기는 성장발육발달의 과정에 있는 시기로 특히 발달 과업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며, 성인 생활체육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1]. 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신체의 발육발달은 물론 지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 등 전인적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2]. 이는 유소년 체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국내 축구 현실과는 상반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축구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대회입상 실적을 내기 위한, 이기는 축구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3]. 스페인과 일본, 포르투갈과 같이 유소년 클럽 팀이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상급학교의 진학이 아닌 즐기는 축구와 학업과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이미 정착시켜 온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다.

2018년 독일 월드컵의 개최로 축구의 열기가 다시 한 번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축구의 열기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며 8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한국 축구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을 총평하면서 유소년 축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4], 최근 유소년 리그 및 대회 선진화를 주제로 10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하면서 한국 축구 발전의 중심에는 유소년 축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박지성 선수가 2014년 은퇴한 후 국민 끝에 대한축구협회 '유스 전략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수락한 이유도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5].

국내에서도 엘리트 스포츠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학생 육성 체계를 바르게 수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6].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 엘리트 축구에서 벗어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축구를 목표로 2가지 리그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축구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의 축제'를 내세우며 2010년부터 시작 된 '유소년 클럽리그'와 2013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며 '아이들에게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를 목표로 'i-리그'로 명명되는 유소년축구리그(2013년)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다[7,8].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노력으로 리그를 개최하여 활성화되어가고 있었지만, 유소년 클럽 리그의 정체성이 불명확해지면서 2015년부터 i-리그와

통합하여 진행되었다.

'유소년 클럽리그'는 선수를 목표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취미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클럽 팀 간의 리그이다. 이와 다르게 'i-리그'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아마추어 축구팀들 간의 경기를 목표로 하였다. 성격이 다른 두 리그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i-리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팀별 수준차이, 아마추어와 엘리트 축구 선수의 혼합과 같은 이슈가 발생 되는 것으로 보여 지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국내 유소년 축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1,5,7]. 유소년 축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서도 선수 육성을 위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 유소년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축구 리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즉,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유소년 축구리그를 대표하고자 하는 'i-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과 정책 변경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소년 클럽리그'와 'i-리그'의 통합과 운영에 대해 연구하여 'i-리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i-리그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i-리그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 i-리그와 유소년 클럽리그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3. i-리그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i-리그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i-리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한 질적 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호적 대화과정을 토대로 한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9], 인터뷰는 일상적 대화와 달리 연구자가 만든 인위적인 성격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10]. i-리그에 대한 사전 연구 부족으로 본 연구를 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질문 개발을 위해 국내 유소년 축구 관련 문헌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동의를 받았다. 유소년 축구 리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문헌고찰의 내용을 정리하여 사전에 전달하였고, 인터뷰 진행 후 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여자 선정 시에는 동질적인 대상을 선정해야하고,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보통 6~10명으로 구성된다[9]. 본 연구에서는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한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No	Name	Sex	Career
1	KYS	M	Youth soccer club coach
2	KBY	M	Youth soccer club coach
3	YSH	M	Weekend-league Second place team coach
4	OSS	M	S-city football association staff
5	SJM	M	K-city football association staff
6	PSK	M	T-Gun athletic association staff
7	KMK	M	Researcher of youth soccer system
8	SKH	M	Researcher from soccer athlete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i-리그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 3명과 지역 관계자 3명, 그리고 축구 전문가 2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제 리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지도자와 운영주최였던 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유소년 축구 연구자는 리그 체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 동의와 익명성 보장, 인터뷰 내용의 녹음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였다. 연구 결과가 도출 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을 고지하였고, 논문 또는 보고서로 출판될 가능

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2.4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1차로 국내 유소년 축구 시스템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한국 유소년 축구는 크게 학교축구와 클럽축구로 구분된다[11]. 학교축구에 속하는 초중고 리그는 2009년부터 시작 된 리그로 주로 주말에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흔히 '주말리그'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클럽 리그에는 유소년 클럽리그와 i-리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 유소년 관련 축구 리그는 3가지 종류의 리그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운영상의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12]고 나타났다.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 된 유소년 관련 축구 리그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체육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조정자가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자료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반구조화 된 형식의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반구조화 된 질문을 위해 문헌고찰에서 도출 되었던 키워드는 유소년 관련 축구 리그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발전방향이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7년 11월 1일, 서울시 소재 C 대학교 내 연구실에서 연구 참여자 8명 모두 참석하여 실시하였다. 서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사전에 이메일로 제공 된 i-리그 관련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하였고, 우선적으로 나오는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나타난 첫 번째 주제는 'i-리그'의 문제점이었고, 연구자의 견해나 의견이 개입되지 않기 위해 해석적 대화를 지양하였다. 면접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와 노트북을 사용하여 기록하였고, 총 1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집단에서 토의 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범주, 범주, 주제로 통합하여 정리하는 내용분석방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전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종료 후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자료를 코딩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진술한 내용을 통

합하여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 된 내용을 다시 하부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여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최종 분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Creswell이 제시한 연구 참여자간 검증(Validation)을 실시하였다[13]. 의견의 불일치나 다른 해석이 발생한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간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과정을 거쳤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의견을 제시하였던 참여자에게 확인 과정을 거쳤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확인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한다[14].

3. 연구결과

유소년 축구의 그리 발전방향 탐색을 위해 i-리그를 중심으로 타 리그와 비교하였을 때 i-리그는 우승팀이 없어 취미와 재미 위주의 축구를 즐길 수 있고, 연령별로 8인제 또는 5인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 효율적인 실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문화 행사가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승강제가 없고, 우승팀을 가리지 않아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고, 순수 아마추어 팀과 클럽 팀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실력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리그는 초,중,고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리그로 본 연구주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에서 배제하였다. 주말리그, 유소년 클럽리그, i-리그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Domestic youth soccer league comparison

	Weekend league	Youth club league	i-league
Purpose	Play, Study, Enjoy	Festivals for children who dream of football	Leads to unlimited possibilities for children
Sponsor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Football Association	Korea Football Association	Korean Olympic Committee
Manage	Korea Football Association, City-Do Football Association	Korea Football Association, City-Do Football Association	Korea Football Association, City-Gun-Gue athletic association & Football Association
Object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players	Under 12 years players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Game	11 players	8 players	5 players, 8 players, 11 players
System	Weekend league during the semester. Tournament league during the vacation	Apr-Sep: weekend & Holidays Oct: Regional League Excellence Team(16) Nov: First & Second place team	Apr-Sep: weekend & Holidays. At least 6 games per league. More than 1 elementary league running(Mandatory)
Winning team	O	O	X
Elevation system	O	O	X
Event	X	X	O

이를 기초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주제를 선정할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Focus Group Interview Subjects

Subject	Content
1	i-league management
2	Integration of youth club league and i-league
3	i-League direction

인터뷰는 총 3가지 주제로 분류 되었고, 그 하위 범주로는 ‘문제점’, ‘해결방안’ 그리고 ‘부처별 역할’로 분류 되었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진술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3.1 i-리그 운영

본 연구에서의 첫 주제는 i-리그 운영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참가팀의 수와 거리’, ‘홍보’, ‘운영주최’가 세부내용으로 나타났다.

3.1.1 i-리그 운영 문제점

리그 운영 문제점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참가팀이 적은 것과 이로 인해 참가팀이 적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만 리그를 진행’하는 것이 부각되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클럽팀들이 이 리그가 있는지도 몰라요. 잘 모르니까 신청하는 팀들도 적죠. 수도권이야 금방 소문이 나지만 지방에서는 홍보를 더 잘 해줘야...(중략)”

“초등학생들이 적은 지역은 참가 팀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같은 팀들과만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미가 떨어지게 되죠.”

“한 지역에서만 리그가 진행 되니까 다른 지역 팀들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리그가 더 발전하려면 다른 지역 팀과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가팀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참가하였던 팀이 계속해서 참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팀이 적어 계속해서 같은 팀과의 경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각 지역에서만 리그가 진행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팀과 경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매년 같은 팀과 경기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다양한 팀이 참가를 할 수 있어 새로운 팀과의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초등생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팀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3.1.2 i-리그 운영 해결방안

리그 운영 해결방안으로 ‘주최의 통일성’과 ‘권역별 운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지금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곳이 맡아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두 곳에서 운영을 하면...(중략)”

“지역별 보다는 권역별로 운영을 해야 해요. 운영을 시군구 축구협회로 이관하여야 먼 거리 이동하거나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앨 수 있어요.”

“시도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지 권역별로 주관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해요.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시도 협회에서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도 체육회, 시도 축구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리그가 통합되기 전에는 ‘유소년 축구 리그’는 대한축구협회에서, ‘i-리그’는 대한체육회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통합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축구협회 단독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역별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인가,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권역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는 주체의 단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혼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3.2 유소년 클럽리그와 i-리그 통합

리그 통합의 주제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팀별 수준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해결방안으로 ‘리그의 분리’와 ‘운영의 통합’이 제시되었다.

3.2.1 리그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

리그 통합 시 순수 아마추어와 클럽팀이 합쳐져 경기가 이루어지므로 ‘팀별 수준차이’와 ‘승패 동기 여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기존 유소년축구리그 참가자들이 큰 점수 차이로 지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해요. 아이들인데 그렇게 실망하면 누구라도 나오기 싫어지죠.”

“참가 팀 간에 실력 차이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죠. 어떤 기준이 없어서 순수한 아마추어하고 수시로 연습하는 클럽팀하고 상대가 안 되죠.”

“왕중왕전 이라던지, 어떤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 이들에게 너무 승리만 목표로 하는 것도 문제죠.”

리그가 통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어 순수 아마추어 팀과 선수를 육성하는 팀이 같은 리그에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수준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참여자들의 사기나 동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리그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또한 왕중왕전 또는 우승팀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참여 동기와 승리에 대한 열정 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승리팀을 가릴 경우 승패에만 집착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2.2 리그 통합을 위한 해결방안

리그 통합의 해결 방안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승급제도’를 두며, 리그 ‘운영 주최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유소년축구 리그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

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1부는 엘리트 쪽으로 하고, 2부는 생활 스포츠로 나누어서...(중략)”

“U-12 초등부까지는 팀 수준에 따라서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 하는 게 효율적일 거예요. 아니면 서로 승급이 가능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A 그룹이던지 B 그룹이던지 속해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

“지금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가 따로따로 운영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이 통합되어야 리그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리그 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으로 승급제도를 둔 리그 분리로 나타났다. 초등부까지는 1부와 2부 또는 A와 B 그룹으로 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리그의 수준을 양분화 하고, 승급제도를 통해 리그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I-리그 운영의 해결방안에서 제시 된 의견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 기관에서 운영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3.3 i-리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유소년 축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리그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공청회 진행’, 승패보다는 ‘재미와 흥미 위주’,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맡아서 진행해야하는 ‘지도자와 관계자 교육’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3.3.1 i-리그의 향후 방안

이미 i-리그가 통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다시 수립하고, 경기 자체에 재미를 느끼며 축구에 대한 ‘재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승패보다는 경기 경험을 통해서 재미나 흥미,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리그가 되어야 해요. 결국 유소년 축구 리그가 한국 축구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i-리그 선수들이 학원 축구나 학교 축구로도 진입할 수 있게 승강제 같은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해요.”

“리그가 어떠한 성격을 가질지에 대해서 초반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진행해야 해요. 경쟁 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둔다던지... 공청회나 설명회를 자주 열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죠.”

2015년부터 리그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제대로 된 운영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지도자부터 정책 결정자까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부목표와 비전을 다시 정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유소년 축구의 본질적인 목표인 재미와 흥미, 배움을 습득할 수 있는 리그가 될 수 있도록 목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3.2 대한축구협회의 역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현재 허술한 부분이 존재하는 ‘선수 관리 체계의 정립’과 ‘지도자 교육’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대한축구협회가 i-리그가 발전할 수 있도록 파견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어수선한데 혼란이 없도록 한 곳에서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한축구협회가 선수 등록도 관리하고 있으니, i-리그 선수들도 관리를 맡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축구 전문가 집단이니 유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 교육에도 힘을 써야죠.”

대한축구협회는 지도자와 선수를 관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부정선수가 없도록 선수등록 및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유소년 축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독, 코치, 심판,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도 깊은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다.

3.3.3 대한체육회의 역할

대한체육회에서는 리그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동장 및 시설 확보’와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지도자와 관계자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어쨌든 유소년들이 축구를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리그 운영 시 운동장을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i-리그는 선수들 경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심판이나 운영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필요하죠.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도자나 관계자들에게 교육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i-리그’는 각 지역에서 연간 리그가 운영 되므로, 연초에 지역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 운영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전반을 관리하는 대한체육회는 리그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운동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와 관계자 교육에서도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4. 고찰

본 연구는 i-리그가 유소년클럽리그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 분석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리그 운영상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홍보의 부족과 권역 내 리그 진행이 부각되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팀 부족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일원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참여 팀 부족은 유소년 축구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문제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저변 확대 방안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축구부 중심의 대회를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클럽 대회 리그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시스템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박정근[1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일정 지역 내의 클럽팀들이 자발적으로 리그에 소속되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i-리그의 발전방향에서도 함께 제시된 바와 같이 주최의 일원화를 기반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시·군·구 권역 내 리그 진행 문제점은 시도별로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담당 운영 기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규정되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시·도에서, 또 일부 지역은 군·구에서 운영이 된다면 운영의 혼선과 지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리그 참여 클럽 간의 위치는 자동차로 30분 거리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

어[9], 리그 참여에 대한 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규정을 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i-리그와 유소년 클럽리그와의 통합으로 나타난 가장 큰 이슈는 ‘팀별 수준차이’와 ‘승패 동기 여부’이다. 유소년 클럽리그에 출전하는 팀은 기존 학교운동부 개념의 축구부와 비슷한 체계로, 선수부와 경쟁이 가능한 팀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16]. 클럽 팀이 갖는 학교 축구팀과의 차이점은 운동과 학업을 함께 수행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17]. 즉, 이미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클럽 팀과 순수 아마추어 팀(i-리그 참가팀)이 같은 리그에서 경기 시에는 팀별 수준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i-리그 내에서 A그룹과 B그룹, 또는 1부와 2부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i-리그의 분화는 미래의 유소년 축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의 경우 각 연령별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리그가 진행되고 있어 약 66만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18]. 독일 또한 유소년 축구 리그가 연령에 따라서 A에서 F리그까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중에는 방과 후에 경기가 열리고 있다[9,19]. 이와 같은 맥락으로 리그 통합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국내 유소년 축구도 연령별 또는 수준별로 리그를 세분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지역 내 리그 진행과 리그의 세분화를 위한 승강제 도입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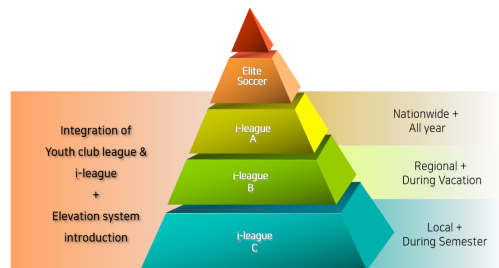


Fig. 1. Integration plan of domestic youth soccer

리그 통합으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승패 동기 여부’가 부각되었다. i-리그로 통합되면서 우승팀을 가리지 않고 왕중왕전과 같은 지역 우승팀간의 경기가 없어지면서 재미와 취미 위주의 리그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축구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소년 축구는 단지 축구를 배우는 개념이 아닌 축구를 통해

사회성과 성격형성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해야 함[12]을 강조하기도 한다. i-리그는 아이들에게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목표에 적합하게 페어플레이상, 봉사상, 질서상 등을 통해서 유소년들에게 중요한 덕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i-리그의 나아갈 방향으로 유소년 축구가 한국 축구의 밑바탕이 되기 위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한 한국축구 정책제안 간담회[4]가 하나의 노력으로 보여진다. 유소년 리그 및 대회 선진화를 주제로 진행 된 간담회는 아마추어 축구가 아닌 선수육성을 위한 리그에 주제가 제한되어 있어 i-리그와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이와 같은 의견수렴 시도가 아마추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공청회나 간담회가 진행된다면 유소년 축구의 체계와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반 시설의 확보와 지도자 및 관계자 교육, 선수 등록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는 유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활용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박지성[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소년 축구 지도자 양성과정과 지도자 윤리강령, 프로그램 개발을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강현희, 최덕목[16]의 연구와도 맥락을 함께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i-리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담당 운영 기관의 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리그 통합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리그의 세분화와 유소년 축구에 알맞은 동기유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이 나타났다. i-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 설정과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각 부처의 통합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각 부처의 융합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i-리그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으나, 질적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8명의 참여자의 견해로 진행된 연구이기에 주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므로, 각 주제에 대한 세세한 분석과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i-리그 통합,

교육·문화 행사, 경기 진행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참여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문제 요인과 개선방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i-리그 정착에 도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S. H. Jun. (2014). Review of Psychological effects of early-childhood Physical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Physical Education*. 15(2), 69-88.
- [2] Y. R. Kim. (2011). The Policy Alternatives of Extending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for Early Childhood in Korea -Center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of Par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9(3), 59-71.
- [3] B. Y. Lee. (2018). *The Direction for Invigorate and Operating Consideration on Youth Soccer System of Korea*. Master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 [4] J. M. Park. (2018). *Lack of Korean soccer skills..* It resulted in the issue of fostering youth soccer players.<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077>
- [5] Y. M. Lee. (2017). [Lee Young-mi interview] *Park Ji-sung, head of Youth Strategy Division*, discusses youth soccer system.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347591&memberNo=21659980&vType=VERTICAL>
- [6] K. K. Jung. (2016). Study about the Priority Order of Revitalization Factors in U-League through AHP Method.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5(1), 94-108.
- [7] T. J. Kwon. (2018). [Animated picture] Festivals, 2018 i-League opening ceremony scene. http://www.kfa.or.kr/competition/?act=lg_i
- [8] Korea Football Association Soccer Headquarter (2016). I-league introduction and status. <http://koreasoccer.or.kr/i-league/iLeagueGameStatus.action>
- [9] Krueger, R. A., & Casey M. A. (2014). *Focus Group: How to conduct an application survey* (B. O. Min., D. H. Cho.). Seoul : Myung-In Publisher. (Originally published in 2009)
- [10] B. Y. Im., D. R. Kim., H. N. Im. & K. H. Kim.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happiness and participating desire of economic activity among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ergence Society*, 9(8), 109-116.
- [11] Korea Football Association. (2017). *Onside, How Hwang In-Bum lives as the last player in the second division*. Seoul : KFA Publishing.

- [12] J. S. Park. (2012). *A proposal of optimal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Youth Football*. Master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 [13] Creswell, J.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London a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14] Krueger, R. A. & Casey M. A. (2014). *Focus Group: Application survey implementation method*. Seoul : Myung-in Publishing.
- [15] J. K. Park. (2009). An Investigation on Development of Korean Youth Baseball and Soccer.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7, 593-606.
- [16] H. H. Kang & D. M. Choi. (2017). An Autoethnography on Football Club Operation Experiences, *JKSSPE*, 22(3), 17-35.
- [17] Y. W. Kang., P. S. Kim., Y. S. Kim., I. H. Park. & T. H. Kim. (2005). 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cer Coaching Experience of Youth Soccer Coaches, *The Korea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6), 89-101.
- [18] S. M. Jo. (2015). *Why they do not teach how to win*. Kyoto: GRIJOA FC Publishing.
- [19] S. Y. Im. (2011). Exploring the success ideological framing of media and immanent reality regarding elitism of Korean women's socce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3(3), 159-182.

전 선 혜(Jun, Sun Hye)

[정회원]



- 1992년 8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유아 신체활동, 임신부 신체활동, 스포츠 심리학
- E-Mail : shjun@cau.ac.kr

이 범 목(Lee, Pum Mook)

[정회원]



- 2008년 2월 :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
- 2011년 2월 : 가천대학교 물리치료학
- 2017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유아체육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유아체육, 운동발달, 좌우 균형
- E-Mail : mook0806@naver.com